[1956-09-27, 에버렛 스완슨이 후원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1956년 9월 27일
일리노이주 시카고

한국 고아들의 후원자님,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한국에서 "여러분의 고아"의 사진과 이름, 나이 정보를 받았습니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정말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아직 여러분의 고아에 대한 세부 사항을 완전하게 받지는 못했지만, 더 많은 정보가 곧 도착할 것입니다. 지혜롭게 기도하실 수 있도록 제가 가진 정보를 여러분께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린이는 서울 리틀 램스 보육원 및 학교(Little Lamb's Orphanage and School)의 천막에서 생활하고 있는 650여 명의 떠돌이 어린이 중 한 명입니다. 이 어린이들의 대부분은 구두닦이 소년, 소녀들로서 낮에는 일을 합니다. 밤에는 25명의 교사가 가르치는 이 천막에서 학교 수업을 듣고 있으며, 이 교사들은 보수도 받지 않고 희생적으로 시간을 내는 대학생들입니다. 신학교 졸업반인 김동빈(Mr. Kim Dong Bin) 씨가 이 사역을 이끌고 있으며, 이 어린이들의 영혼을 위해 열정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는 주일과 수요일 예배를 인도하고, 다른 교사들은 주중 새벽기도를 매일 인도합니다. 저는 이 훌륭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으며, 몇 년 동안 그를 돕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곳을 방문했을 때 그들을 도와 달라는 간절한 부탁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그럴 수 없었습니다. 몇 주 전에 다시 제 도움을 요청하는 매우 긴급한 호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한국 고아들의 후원자가 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셨기에, 저는 믿음으로 이 사랑스러운 어린이 50명을 후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중에 더 많은 어린이를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다른 후원자들을 구하는 데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위 분들께 권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진 속 두 명의 여자 어린이를 제외하면 모두 남자 어린이들이라는 점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자 어린이를 요청하신 분들께도 부득이하게 남자 어린이를 배정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점이 문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보육원의 우편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원장님의 주소만 갖고 있습니다. 곧 도착할 예정이니, 우편 발송 지침 등의 안내 사항들과 함께 보내 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 좋은 선교사 친구인 [1]피터 반리에롭(Peter VanLierop) 박사가 최근 제게 쓴 글입니다. "저는 방황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보육원과 학교에 관한 소식에 특히 관심이 많았는데, 목사님의 소식을 받고 무척 기뻤습니다. 서울, 대구, 부산 등 다른 도시에서도 볼 수 있는 이 많은 거지 소년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해 왔는데,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 같았습니다. 이 어린이들은 수천 명에 이르며, 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 목사님의 연락 담당자가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리에롭 박사는 조선기독대학교(Chosen Christian University)의 기독교 교육학과와 사회학과를 이끌고 있으며, 진정한 전도자입니다. 그는 1951년 전쟁 중에 저를 한국에 처음 데려온 사람입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름 _____
- 나이 _____
- 학년 _____

어린이들의 나이가 대략적인 경우도 있지만, 가능한 한 정확한 생년월일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한국의 아기들은 출생 시 한 살로 간주하고, 그다음 해 첫날에 두 살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태어난 바로 다음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성을 먼저 표기합니다.

다시 한번, 이 소중한 어린이들에 대한 사랑과 긍휼(compassion), 그리고 "입양한 고아" 배정을 기다려 주시는 후원자님의 인내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에버렛 F. 스완슨 올림

[1]피터 반 리에롭(Peter Van Lierop, 한국명: 반피득, 1918~2012): 1949년 미 북장로교 파송 선교사로 한국에 들어와 경북 안동을 중심으로 사역을 담당하였으며, 1954년 학교법인 경안학원(경안고•경안여고•경안중•경안여중)을 설립했다 (https://m.kmib.co.kr/view.asp?arcid=0006331366).